

함제임스 함린다 선교사 사역소식지 11 월 14 일 오전 01:25

일본 모리오카 함제임스 함린다 선교사 11 월 선교소식입니다.



일본 모리오카 함제임스 린다 선교사



11 월달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며
그동안 선교 사역에 함께 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매우 쌀쌀해지면서 마음이 움추려드네요.

저희는 후쿠시마 이와키 지역에서 사역하
시는 선교사님께서 미신자 전도를 위해 김
치교실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아 김치교실
을 9 월달에 실시 했습니다.



예상 외로 많은 미신자가 참석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은 2년동안 시험에 들어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자매가 김치교실을 통하여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70세가 된 자매는 김치교실 끝나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릴 때 다녔던 교회를 회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교회 나오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점심 식사도 정성껏 대접 했습니다.

11월달 초에 일본인 세명을 한국문화를 너무 좋아하고 또 교회를 소개 하며 전도할 기회가 주어져 한국 방문을 했습니다.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일본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서울 투어도 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크리스찬들의 친절함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9 월달에 저희들이 사역하는 모리오카 교회에서 젊은 엄마들 초대하여 한국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지지미(빈대떡)와 잡채를 가르쳐 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제목*****

- 1) 11월 28일날 미신자들을 초대하여 크리스마스 장식을 가르쳐 주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성령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 2) 콘도 목사님과 치오리사모님께서 늘 영적으로 세워지도록.
- 3) 저희 부부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 4) 영어 모임을 위하여 싱가포르에서 오는 단기팀들에게 성령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손모아 주시므로 이 시간 까지 오게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 드리며

모리오카에서 함제임스 린다 선교사 드림